



소규모 취약시설 무상 안전점검 지원

주민 생활시설의 안전까지 챙기는 복지형 안전관리 서비스

문의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8)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 정부의 핵심 키워드인 “안전”과 “복지”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생활밀접 시설의 안전관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 시설물 관리주체가 영세하고 안전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여 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물을 “소규모 취약시설”로 지정하고 무상으로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 ◎ 이와 같은 계획은 지난해 12월에 입법예고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순조롭게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제도의 정착과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 국토교통부의 이번 조치는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중대형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의 안전까지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법령에 담아서 제도화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 ◎ 그동안 산하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근거로 보육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해 왔으나, 빈약한 제도적 기반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서비스 확대가 곤란했던 것이 사실이다.

-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포함하여 소규모 건축물, 교량, 옹벽, 저수지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시설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모든 시설로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 ◎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결함과 원인 분석은 물론, 사고예방 대책까지 제시하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한다.
 - ◎ 참고로, 무상 안전점검 지원요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관계 행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보건복지부), 전통시장(중소기업청) 등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은 매년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안전점검이 필요한 소규모 취약시설을 선정하여 무상 안전점검을 시행
 - ② 시설물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 건축물, 아파트 옹벽 등 소관 행정기관이 불명확하지만 불안한 시설은 시설 관리주체가 직접 요청하면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

- * 요청방법 : (SMS) #4949, (전화) 1599-4114, (App) 국토재난정보센터

- 최근 일본의 터널 붕괴, 인도의 건축물 붕괴 등 주변국에서 발생하는 잦은 안전사고와 경주의 저수지 붕괴 사고 등으로 시설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 ◎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설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안심국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의 안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기업 공동주택, 설계대가 이제 제값 받게 된다

LH 공동주택 설계대가 기준 대폭 개정
곧바로 시행

문의 |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044-201-3757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자체 별도로 운영하는 「주택설계용역대가 산정기준」을 국토교통부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여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건축사법에 의해 국토교통부 권고기준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설계 대가기준」이 있으나, 공기업은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운영하여 왔다.
 - 예를 들면, 총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설계대가를 낮추기 위해 총공사비를 축소하거나, 동일 평면이 반복된다는 이유로 요율을 대폭 삭감하는 등
 - 설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건축설계 시장마저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는 건축의 품격 제고와 설계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부터 건축설계 대가를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하였다.
 - 우선 공기업의 공동주택 설계대가를 현실화하여 현재 총공사비의 1.3% 수준에서 2.8% 정도가 되도록 기준을 개정하고,
 - 장기적으로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국토교통부 대가기준을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LH가 설계대가를 개정함에 따라 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나머지 공기업도 설계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건축서비스산업을 진흥하는 추세와 맞물려 건축생태계의 건실한 성장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름다운 명언

- 고든 B. 힝클리 -

Please don't nag yourself
with thoughts of failure.
Don't set goals far beyond
your capacity to achieve.
Simply do what you can do,
in the best way you know how
and the Lord will accept your effort.

실패에 대한 생각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
성취 능력을 넘어서는 목표를 세우지 말라.
그저 알고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러면 신께서 그 노력을 기쁘히 여기리라.



전력수급 비상시 절전 참여 요령

정전사고 예방 생활속 전기절약으로 시작

예비전력이 500만kw이하가 되어 비상발령이 내려졌을 때, 각 가정과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절전 참여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 가정

- ◎ 전기장판, 에어컨 등 냉·난방기기 가동을 자제합니다.
- ◎ 다리미, 청소기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의 사용을 중지합니다.
- ◎ 꼭 필요한 조명을 제외한 각 방의 모든 조명등을 끕니다.
- ◎ 재난상황 파악을 위한 라디오, TV 외의 가전제품 사용을 중지합니다.

■ 사무실

- ◎ 건물 관리자는 중앙조절식 냉·난방설비 상요을 중지하거나 온도를 조절합니다.
- ◎ 사무실내 냉·난방설비 가동을 중지하고 개인용 냉·난방기기를 모두 끕니다.
- ◎ 사무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와 커피포트, 냉온수기 자판기 등을 끕니다.
- ◎ 안전과 보안을 위한 최소한의 조명을 남기고 모두 소등합니다.

■ 상점/상가

- ◎ 냉·난방설비 가동을 중지하고 전기장판, 에어컨 등을 모두 끕니다.
- ◎ 안전과 보안을 위한 최소한의 조명을 남기고 모두 소등합니다.
- ◎ 식재료 부패와 관련 없는 가전 제품의 가동을 중지하거나 조정합니다.
- ◎ 자동문, 에어컨튼 사용을 멈추고 환기 팬 가동을 일시적으로 정지합니다.

■ 공장/산업체

- ◎ 공장관리자는 중앙조절식 냉·난방설비 가동을 중지하거나 온도를 낮춥니다.
- ◎ 각종 사무기기(컴퓨터, 프린터 등)와 냉온수기 자판기 등을 끕니다.
- ◎ 사무실은 모두 소등하고 내부의 조명은 최소화 합니다.
- ◎ 비상발전기의 가동을 점검해 보고 운전 상태를 확인합니다.